

언택트 담은 중소형株펀드 강세...인덱스 수익률 추월

10억 이상 액티브 중소형주 펀드 최근 3개월간 수익률 7.07% 기록 언택트 관련 비중 확대 높은 성과 공매도 금지 해제 땀 타격 우려도

국내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중소형주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며 대형주가 빠른 반등을 하지 못한 데다 공매도 금지 효과로 중소형주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언택트(Untact·비대면) 관련 종목의 비중을 높인 펀드 수익률이 두각을 나타냈다. 다만 오는 9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일부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장기투자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액티브 중소형주 펀드 66개의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7.0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인덱스펀드(377개) 수익률(5.99%)을 앞질렀다. 범위를 넓혀보면

<3개월 수익률 TOP10 중소형 액티브 펀드 수익률 비교> (단위: 억원, %)

상품명	설정액	1개월	3개월	6개월
마이다스미소중소형투자(주식)C-W	28.89	20.91	17.65	32.36
우리GBest중소형증권투자(주식)ClassC(W)	24.47	14.48	14.11	15.91
신한BNPP뉴그로스중소형투자(주식)(종류A-e)	11.71	16.63	13.6	14.84
신한BNPP뉴그로스중소형주목표전환형 2(주식)(종류A-e)	13.76	17.48	13.21	14.38
IBK중소형주코리아(주식)종류Ce	31.17	14.47	11.67	16.24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1(주식)종류A	152.58	18.89	11.27	13.25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1(주식)Ae	12.3	15.36	9.82	16.46
우리중소형고배당1(주식)ClassS	19.51	15.81	9.77	18.99
현대인베스트먼트중소형배당투자(주식)C-F	13.12	14.56	9.71	15.97
한국밸류10년투자중소형투자(주식)종류C-E	16.67	14.96	9.67	21.09

/에프앤 가이드

국내 주식형펀드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4.98%로 집계됐다.

액티브펀드는 지수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 편이다. 패시브 펀드라고도 불리는 인덱스 펀드는 이 반대다. 시장 대표지수나 업종지수를 추종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대형 우량주의 편입 비중이 높다. 최근엔 종목 장세가 펼쳐지며 업종이나 종목에 따라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어 여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마이다스미소중소형증권투자(주식)C-W의 3개월 수익률이 17.65%로 가장 높았다. 한 달로 범위를 좁히면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 무려 20.91%의 수익을 거뒀다. 올해 들어 19.60%의 수익을 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언택트 쌍두마차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이 수익률에 반영됐다. 이 상품은 지난 4월 기준 네이버(4.47%)와 카카오(4.45%)를 편입비중 1·2위로 담는다. 두 종목은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27.62%, 39.83% 올랐다. 벤치마크로 삼는 코스피 중형주·소형주 지수의 상승도 한몫했다. 두 지수는 상품이 20%대 수익률을 낸 3개월 동안 13.20%, 10.54%씩 올랐다.

운용을 맡은 이하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이익성장과 신기술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며 “언택트와 헬스케어 비중을 높인 점이 좋은 성과를 낸 요인”이라고 말했다.

신한BNPP뉴그로스중소형주목표전환형증권투자(주식) 2(주식)이 17.45%,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증권전환형투자(주식) 1(주식)이 16.99%의 3개월 수익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중소형주가 선전한 점이 펀드 수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

수는 전 거래일(5일) 749.31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연 최저점이었던 지난 3월 19일(428.35)과 비교하면 74.92% 뛰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증시 복원 과정에서 중소형주 반등이 두드러졌다”며 “시장을 살펴보면 가치주의 흐름이 약해졌지만 성장주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선 걱정한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이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3개월여 뒤면 끝나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며 대형주 반등과 함께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이 조정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코스닥 성장주들을 대거 담은 중소형주 펀드 역시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같은 중소형주 펀드라도 운용전략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비중을 둔 시장이나 편입한 종목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똥똥한 한채’ 대단지 아파트 노려볼까

가구수 많아 관리비 절감 효과 매매가 상승률도 높아 관심 ↑

이달에도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공급된다. 대단지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아 관리비 절감 효과로 경제성이 뛰어나다. 또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및 키즈카페 등 보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입주인 등 유동인구가 풍부해 단지 주변으로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분양 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에 최대 청약자가 몰리고 가격 상승률도 높다.

8일 리얼투데이에 최근 5년(2015~2019년)간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집계해본 결과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1500가구 이상 43.13% ▲1000가구~1499가구 31.22% ▲700~999가구 27.69% ▲500~699가구 25.66% ▲300~499가구 25.00% 순으로 차이가 난다.

올 상반기에 눈여겨볼 만한 대단지로 대우산업개발은 오는 9일 경남 김해시 삼문동 903 일원에 들어서는 ‘이안 센트

<전국 주요 대단지 분양아파트>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규모(일반분양)	시공사
경남 김해	이안 센트럴포레 장유	59~84	1,347가구 (336가구)	대우산업개발
인천 부평	부평 SK VIEW 해모로	36~84	1,559가구 (884가구)	SK건설 한진중공업
충남 천안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74~84	1,023가구	대우건설
경남 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2차	74~84	2,084가구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상기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오피스텔 제외

럴포레 장유’ 59~84㎡ 1347가구 중 일반분양되는 336가구의 1순위 청약은 받는다. 단지는 라운지 카페를 비롯해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이안’ 브랜드 아파트만의 5가지 ‘생활 효율’ 시스템이 적용된다. 현관과팬트리, 드레스룸 등에 수납기능을 강화시키고(살림착착), 스마트폰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관리적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단지 내 다양한 녹지 공간이 들어서고 단지 외곽에는 산책로가 마련된다.

SK건설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도 오는 9일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부평 SK VIEW 해모로’ 36~84㎡ 1559가구 중 일

반분양하는 884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인천 부평구 일원 도시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은 이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성성2지구 A1블록 일원에 공급되는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74~84㎡ 1023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KTX 천안아산역, 경부고속도로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 B5·6·7블록에 들어서는 ‘사송 더샵 데시앙 2차’ 74~84㎡ 2084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도보권에 국공립 어린이집(예정)과 초·고교 용지가 마련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전세계 SOC 투자확대로 수혜 기대

株라쿨라의 종목

건설중장비업체 | 대창단조 |

코로나궤 위기 극복 대규모 투자 토목·건설 중심 경기부양 가능성 굴삭기 판매량 7배 가까이 늘어

굴삭기와 불도저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건설중장비 중소형 업체인 ‘대창단조’에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으로 건설·중장비 업체에 초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굴삭기·불도저 등 건설중장비를 사용하는 토목공사에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재영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8일 “넘치는 유동성으로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건설투자가 진행될 전망이어서 건설중장비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국내 건설중장비 중소형 업체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기업으로 대창단조를 꼽았다.

대창단조는 1955년 설립된 건설중장비 부품 전문 업체로 1989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다. 주로 굴삭기와 불도저 등 건설중장비 하부주행체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조립해 판매한다. 주요 고객사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두고 있다. 매출 7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제품 링크·링크슈는 자동차 타이어와 비슷한 성격의 소모성 부품으로 보면 된다.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주기적인 교체를 해야 한다.

다가올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주요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건설투자는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지출 대부분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단기간에 내수 경기를 촉진시킬 정책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미 2조 달러(한화 25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국도 지난달 양회를 통해 지방 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3조 7500억 위안(한화 640조원)까지 늘리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상된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하반기엔 16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시작될 전망이다. 수도권 내 30만호 신규 주택공급, 7만호 이상의 재개발 사업 등 건설투자와 42조 3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예산이 올해 안에 소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 뉴딜’의 총사업비는 약 76조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내 경기 부양이 토목·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시작과 함께 대창단조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1~2월 1만 4667대에 불과했던 굴삭기 판매량은 3~4월 9만 2036대까지 대폭 늘었다. 이 연구원은 “신규 건설중장비 판매는 향후 애프터서비스(A/S)를 위한 애프터마켓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부품업체들의 중·장기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다.

리서치알음은 대창단조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실적으로 매출액 3058억원, 영업이익 245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10.3%, 31.2% 늘어난 수치다. 그러면서 적정 주가로 4만 4500원을 제시했다. 5일 증가(2만 7300원)와 비교해 63%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셈이다.

이 연구원은 “전방산업의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낙수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호실적이 예상되는 영업실적에 더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해 적정주가에 사용된 주가수익비율(PER) 7배는 무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송태화 기자

GS건설, 유튜브 ‘자이TV’ 실버버튼 획득

건설업계 최초, 11만 구독자 기록

GS건설은 지난달 자이TV가 유튜브로부터 구독자 10만이 넘는 채널로 공식 인증받아 실버버튼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실버버튼은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채널을 대상으로 유튜브 미국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념 증서다. 자이TV는 지난달 10만 구독자를 돌파



한 데 이어 현재 11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실버버튼을 받은 것은 국내 아파트 브랜드 유튜브 채널 중 유일한 사례다. 자이TV는 누적 조회수도 약 100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GS건설에 따르면 개인채널이 아닌 기업 채널로서 단순히 홍보를 위한 콘텐츠가 아닌 소비자들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실제 소비자들의 부동산 생활 전반에 있어 궁금했던 세법이나 청약 의점, 인테리어 팁 등을 다양한 영상으로 풀어냈다는 평이다.

특히 분양 현장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양소장이 등장한 콘텐츠는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연우 기자